

메일 한통으로 '넷플릭스' 문 두드려...예능물 '피지컬 100'의 힘

2주만 제작 결정 이례적...세계 4위
MBC 교양국 장호기 PD 연출 예능
"지상파 위기 속 돌파 필요해 도전"
"오겜 이전 기획...서바이벌 세계 관통"

넷플릭스 예능물 '피지컬: 100'은 장호기 PD의 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다. MBC 교양국 소속인 장 PD는 2021년 10월 일면식도 없는 넷플릭스 예능팀에 기획안을 보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2021)을 떠올리게 했는데, 서바이벌 홍수 속에서도 '가장 완벽한 피지컬은 무엇일까?'라는 답을 찾는 과정이 명확했다. 넷플릭스에서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제작을 결정한 이유다. 지상파 위기 속 스스로 돌파구를 찾았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장 PD는 7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피지컬: 100 간담회에서 "오징어게임을 보기 전에 기획했다. 내 메일이 스팸으로 들어가서 답이 안 왔어"라며 "교양 PD지만 요즘은 장르 구분이 무의미하다. PD를 준비할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인간을 주제로 다루고 싶었다. 피지컬: 100도 인간에 관한 것인데, 특정한 주제로 분류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다. 넷플릭스는 연출자로서 큰 무대 아니냐. 기왕 도전하는데 높은 곳의 문을 두드려보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지상파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내부 직원으로서 항상 '돌파'가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MBC라고 꼭 TV에만 내고, 교양 PD라고 교양만 하기보다 도전하고 싶었다. 이미 시청자들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MBC에) 와서 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방송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방송은 1~2주 안에 빨리 만들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만, 넷플릭스는 확실히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다려줬다. 요구치도 놓아서 훨씬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장 PD는 "예민한 문제일 수 있지만, MBC도 항상 의지는 있었다. 박성제 사장이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은 논의 단계였다. 내가 처음으로 나선 것"이라며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 팀을 꾸렸고, 넷트 '스우파' 제작 경험이 있는 루이웍스미디어와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부딪쳐야 하는 일이 많아서 설득과 노력이 필요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콘텐츠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초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피지컬: 100은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상급 3억원을 두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격투기 선수 추성훈을 비롯해 스케레톤 국가대표 유성빈,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볼

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레슬링 국가대표 장은실, 운동 유튜버 심오뜸, 보디빌더 김춘리, 댄서 차현승 등이 출연했다. 지난달 24일 공개 후 세계 넷플릭스 TV 쇼 부문 4위에 오르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장 PD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시청자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라고 했지만, 오픈 하기 전 너무 초조하고 불안했다. 톱10에 드는 등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감사하다"면서 "BTS 정국(라이브방송에서) 피지컬 100을 봤을 때 동시 접속자 1000만명이 나왔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며 좋아라했다. "한국 시청자들이 좋아하면 세계에서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며 "기획자 입장에선 한국에서 한 번 하고, 대륙별로 하고 싶다.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4회까지 공개했는데, 이번이 잇따랐다. 1대1 데스매치에서 차현승이 몸짱 농부 김경진을 이겼고, UDT 출신 'H 에이전트'가 보디빌더 설기관에게 졌다. "방송생이 입장에선 에이전트H가 탈락해 너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그의 탈락이 우리 프로그램에 각본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짚었다. 남녀 성 대결도 화제를 모았다. 이종혁투기선수 박형근이 여성인 김춘리 가슴 부위 명치를 무릎으로 눌러 비판을 받았다. "어떤 구분 없이 완벽한 피지컬을 찾는 게 기획 의도다. 모든 분에게 설빙하고 동의를 받았다. 언제든 경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며 "춘리씨 목소리, 몸 등에 관해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체해야 할까. 프로그램을 떠나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거나, 신체 부위 관련 악플을 다는 건 문제가 된다. 편견없이 봐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내의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막 등이 정서·문화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도 고민했다.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불편하거나 따라가기 어려우면 안 됐다. 특수 카메라도 많이 활용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맘을 즐기고,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 등 자막이 아니라 그림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들마다 다양한 히스토리가 있지 않느냐. 특별한 연출 없이도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특별히 다뤄줘야 만들진 않았다. 예능적인 자막, 연출자의 의도적인 편집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장에서 담백하게 담는 게 차별점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며 "100명이 출연해 한 분 한 분 하고 싶은 말이 많

지만, 퀘스트마다 보여지는 인물, 몸의 모습을 중심으로 따라가면 시청자들이 깊이 몰입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기존 프로그램과 완전히 달라야 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길 바랐다.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세트, 음악, 미술적인 부분은 오징어게임 떠올릴 만큼 비현실적이지 않았느냐. 출연자 반응, 표정 등은 100% 리얼로 나오게 했다. 출연자들은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경기 끝날 때마다 박수 치고 포용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정말 감명 깊었다. 우리 프로그램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 서바이벌은 자극적이지만, 세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5회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주목 받지 못한 새로운 인물에 관심을 가져 달라."

'빌보드 200 1위' 투바투 "음악 힘 빌려 '모두의 이야기' 전하겠다"



"이번 앨범으로 컴백하고 활동하면서, 바꿨던 일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 '빌보드 200' 1위라는 타이틀을 안겨 주신 우리 모아(MOA·팬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음악의 힘을 빌려 모두의 이야기를 전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되겠다."(범규) K팝 4세대 간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7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 소감을 밝혔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달 27일 발매한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으로 11일자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이전까지 이 팀의 해당 차트 최고 성적은 지난해 5월 발매한 전작인 미니 4집 '미니스드 투: 서스데이의 자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로 거둔 4위였다. K팝 아티스트가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소속사 빅히트 뮤직 통해 소감 건 방탄소년단(BTS)(여섯 번 정상), 슈퍼엠(SuperM),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2번 정상), 블랙핑크(BLACKPINK)에 이어 사상 다섯 번째다. 수빈은 "꿈꿔 왔던 목표가 이뤄져 기쁘고 영광스럽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체감하게 됐다"면서 "언제나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신 우리 모아 여러분과 저희 음악을 함께 즐겨 주시고, 저희가 응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만큼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큰 성장 서사 줄기에 '꿈' '혼돈' '이름' 등의 장(章)을 더해 팀 자체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아울러 내용적 서사뿐만 아니라 사운드적 서사의 통일성을 만드는 것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음반의 '강점'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사운드적 특징은 세련된 팝을 기반으로 당시 유행하는 음악들을 매끈하게 녹인다는 점이다. 태현은 "'빌보드 200' 1위라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모아 분들과 저희 앨범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만의 음악, 앨범, 그리고 멋진 무대 많이 보여 드릴 테니 지켜봐

달라"라고 각오를 다졌다. 연준도 "저희 모두가 바라 왔던 거대한 목표였는데, 팬 분들의 막대한 사랑 덕분에 이룰 수 있게 돼 행복하고 기쁘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1위는 여러분의 것"이라며서 모아에게 공을 돌렸다. 휴닝카이 역시 "이번 활동을 하면서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정말 행복하다. 모아 분들이 있었기에 '빌보드 200' 1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늘 사랑과 응원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되었다"라고 다짐했다. '빌보드 200'은 이제 K팝 그룹들에게 문턱이 낮은 건 확실하다. 더 큰 관심사는 메인 싱글 차트 '핫100'이다. 현지에서 팬덤 위주의 팀이 아닌 대중적인 풀뿌리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름의 장: 슈가라이드'의 타이틀곡 '슈가 러시 라이드(Sugar Rush Ride)'의 '핫100' 진입(98~100위권 예상)이다. 진입한다면 K팝 보이그룹 중에선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차트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게 방탄소년단은 빅히트뮤직 작곡 선배이기도 하다. '슈가 러시 라이드'는 앞서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팝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 진입은 아쉽게 불발됐다.

빌리, 7개월만의 신보로 컴백 대전 합류



그들 '빌리(Billie)'가 컴백 대전에 합류한다. 7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리는 "빌리가 3월 말 네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한다. 빌리만의 독보적인 음악성과 한층 깊어진 스토리를 만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빌리는 전작 '더 빌리지 오브 퍼셉션: 챗터 투(the Billage of perception: chapter two)'에 이어 약 7개월 만에 컴백하게 됐다. 빌리는 그간 발표한 모든 앨범의 서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펼쳐온 만큼 신보로 들려줄 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021년 11월 데뷔한 빌리는 활동마다 초동 음반 판매량에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내달 말 '네 번째 미니앨범' 발매 하고 있다. 빌리의 미니 3집의 타이틀 곡 '링 마 벨(what 어 워너풀 월드(RING ma Bell)(what a wonderful world)'는 영국 매거진 '데이즈드'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K팝 트랙' 1위에 이름을 올렸고, 미니 2집의 타이틀 곡 '간간민가요(더 스트레인지 월드(GingaMingaYo)(the strange world)' 역시 미국 '타임'과 '나일론' 등 여러 매체에서 '2022년 최고의 K팝 노래'로 꼽혔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빌리는 데뷔 1년 만인 지난해 12월 '2022 AAA'에서 '포텐셜상'을 수상했다. 탄탄한 앨범 기획력과 완성도 높은 음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내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빌리의 2023년 첫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인다. 한편 빌리는 내달 컴백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들은 신보 발매에 앞서 오는 10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30주년 한터뮤직어워드 2022'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유선 "박은빈과 '우영우' 촬영 중 감동"...무슨 일?

MBC TV 예능 '라디오스타' 방송 배우 윤유선이 박은빈과 관련된 미담을 공개한다. 8일 오후 10시30분 방송하는 MBC TV 예능 '라디오스타'에서는 윤유선이 출연하는 '여배우로 살아남기' 특집이 꾸며진다. 윤유선은 지난 1974년 아역배우로 데뷔해 연기 경력 50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드라마 '궁', '짝패', '유미의 세포들' 등에서 주지훈, 최우식, 김고은, 이종석 등 배우들의 엄마 역으로 출연해왔다. 베테랑 배우인만큼 촬영장에서 쌓인 에피소드도 많다고 그는 사극 '선덕여왕' 촬영 중 고현정을 당황하게 만든 연기가 있었다고 밝힌

다. 이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특별 출연했을 당시 박은빈에게 감동받은 훈훈한 일화를 들려준다. 수 많은 스타들의 엄마들을 맡았던 윤유선이 뽑은 최고의 자녀가 누구일지도 이목을 끈다. 그는 작품으로 맺은 수많은 연예인 자녀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을 언급한다. 윤유선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데뷔작에 대한 에피소드도 밝힌다. 이와 함께 모두를 놀라게 한 장면을 공개한다고 알려져 호기심을 더한다. 윤유선은 2001년 결혼한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생활 중 직업병 고충을 느꼈다고 고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윤유선의 남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성호로, 두 사람은 결혼 후



1남 1녀를 두고 있다.

강민경, 부친·친오빠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

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부친 A씨·친오빠 B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 모 씨 등 19명이 A·B씨가 개발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연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A·B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께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며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A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파장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강민경과 부친은 왕래가 없다고 털어놨다.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